

2006 '

# 설날 가정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되게 사세요.

**일시: 1월 29일 (주일) 설날**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청파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 설날 가정예배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23편 ..... 인 도 자

찬 송 ..... 248. 시온의 영광이 ..... 다 같 이

교 독 문 ..... 67번 ..... 다 같 이

인도자 :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 중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말 씀 ..... 엡 4:22-24 ..... 인 도 자

설 교 ..... 새사람을 입으라 ..... 가 족 중

찬 송 .....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설교말씀 -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명절 설날에 '새롭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긴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그렇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뜻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 새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해와 새날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사람은 새로운 인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옛 인간성은 벗어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새날이 와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새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첫째,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심령은 욕심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편협한 이기심을 가득 채우고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심령입니다. 새사람을 입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셋째, 화평케 하는 심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자의 '화(和)'는 '먹을 것(禾)을 나눈다(口)'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눌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있기 까지 많은 선조들이 가난한 맘으로, 긍휼히 여기는 맘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잊지 말고 우리도 후손들을 위하여 날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옛사람을 입지 않고 새사람을 입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욕심을 버리고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 유대의 신년 맞이 행사 중에서

신년 첫 날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쇼파(뿔나팔)를 불어 새 해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한다(레 23:24; 민 29:1). 그러므로 로쉬 하샤나를 '욘 트루오'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나팔) 부는 날'이란 뜻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쇼파는 음악 악기로 사용되었다. 또는 출전나팔로, 백성을 전쟁에 소집하는 나팔로, 혹은 전쟁시 적을 놀라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년에 울려퍼지는 쇼파 소리는 작년에 일어난 일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主權) 선포 등등,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상기시킨다. 탈무드는 신년에 울려퍼지는 쇼파 소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